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잘생겼지만
어리석은 왕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Alastair Paterson

각색: Lyn Doerk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1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리더였던 사무엘이 점점 늙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로 사사를 삼아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악하고 돈을 사랑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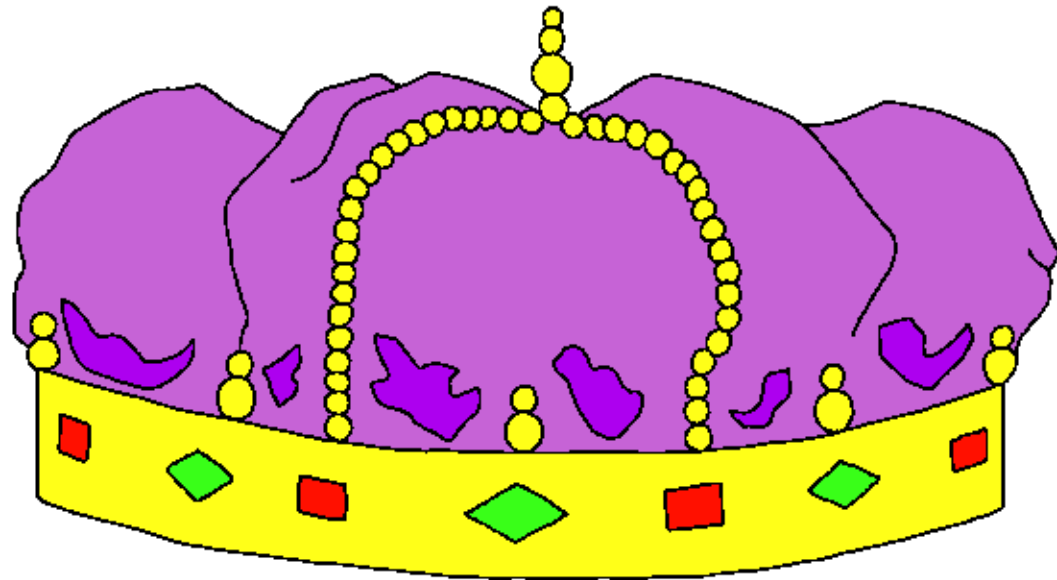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들들의 악한 소행으로 고통당했어요.
판결들은 불공평했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들에게 돈을 내야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원해요!” 라고 장로들은 요청하었어요.
그들은 사악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리길 원치
않았어요.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모시기를 원했지요.



사무엘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으로 계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홍해를 갈라 구출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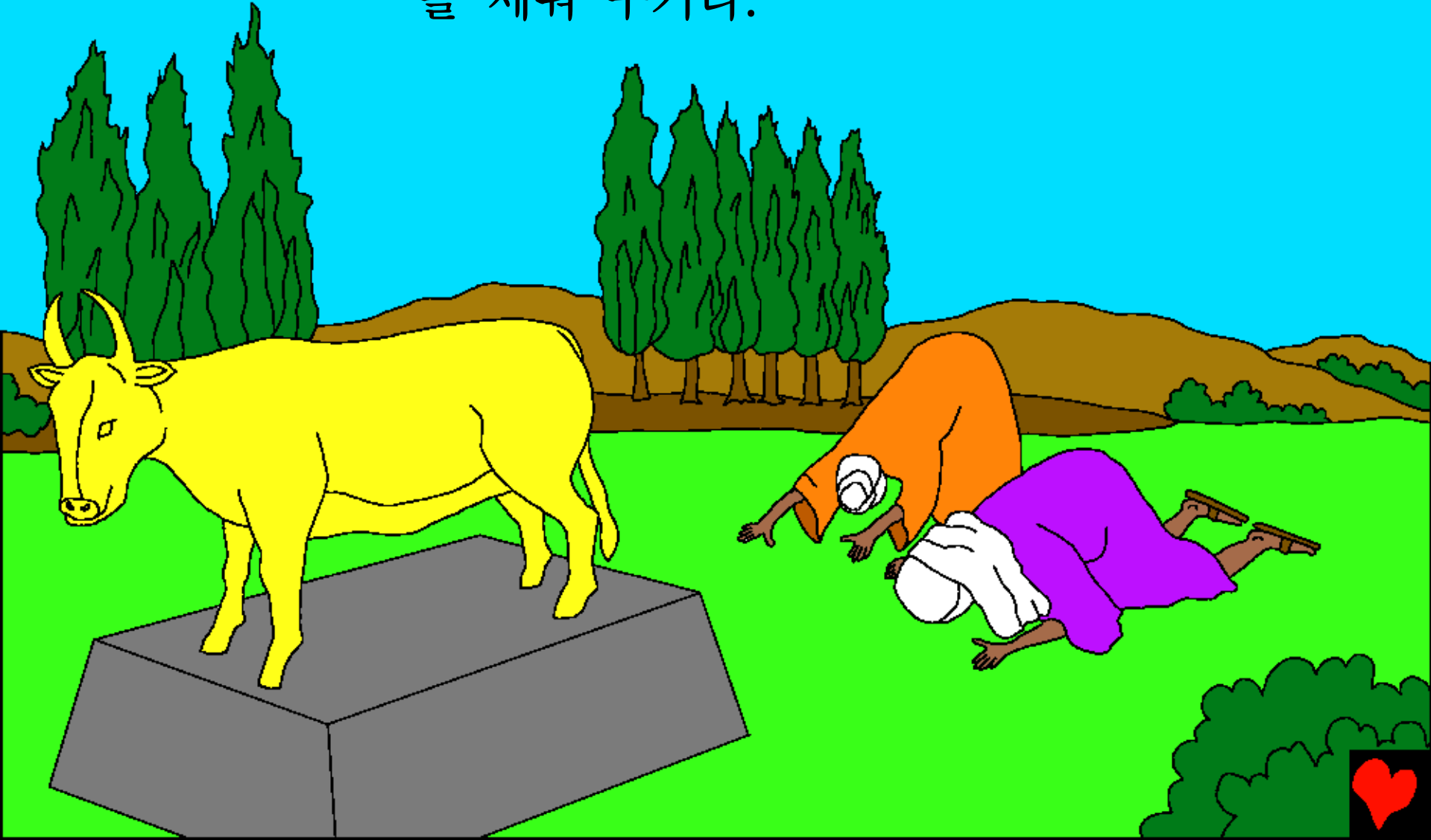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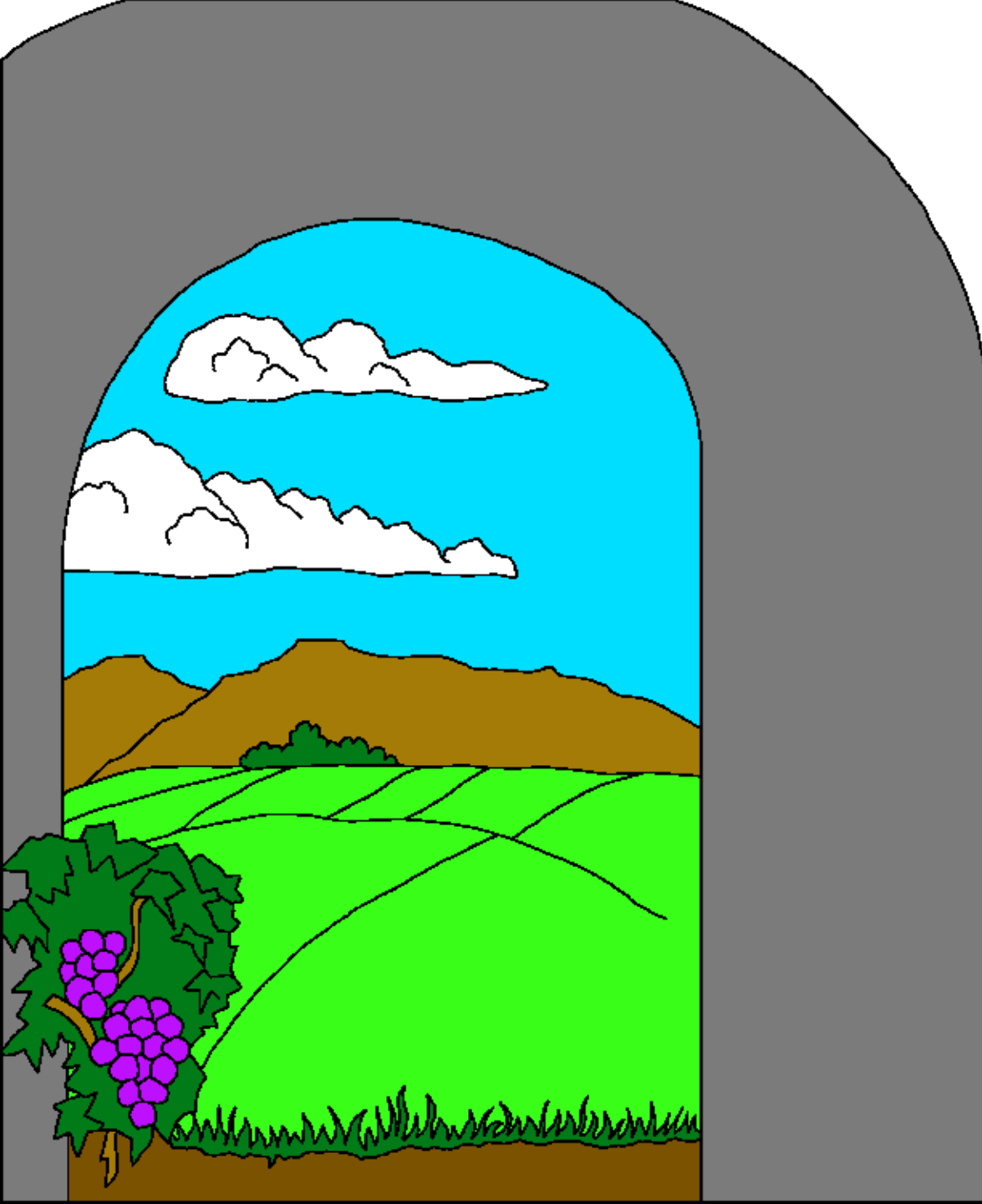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
을 주셨지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치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니?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거라.”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왕은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일 것이며,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할 것이며, 아들들은 군대로 불러가고, 딸들은 왕을 위해 노역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왕의 포도원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세우고 싶어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주
잘생기고, 부끄럼이 많은
청년에게로 데리고 가셨어
요.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
이었는데 그는 키가 남다
르게 아주 컸어요. 사무엘
이 그를 보았을때, 주님께
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라고 말
씀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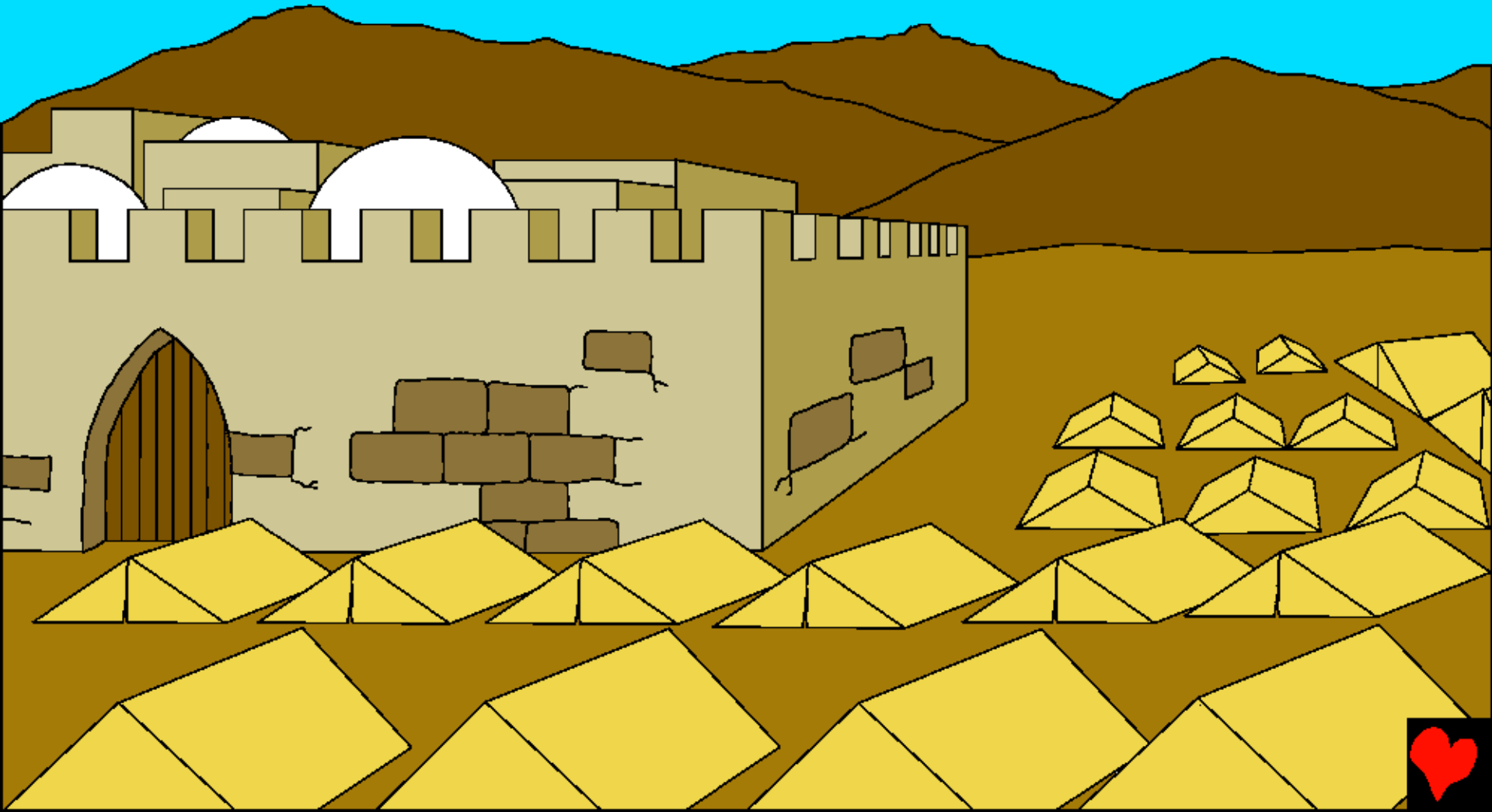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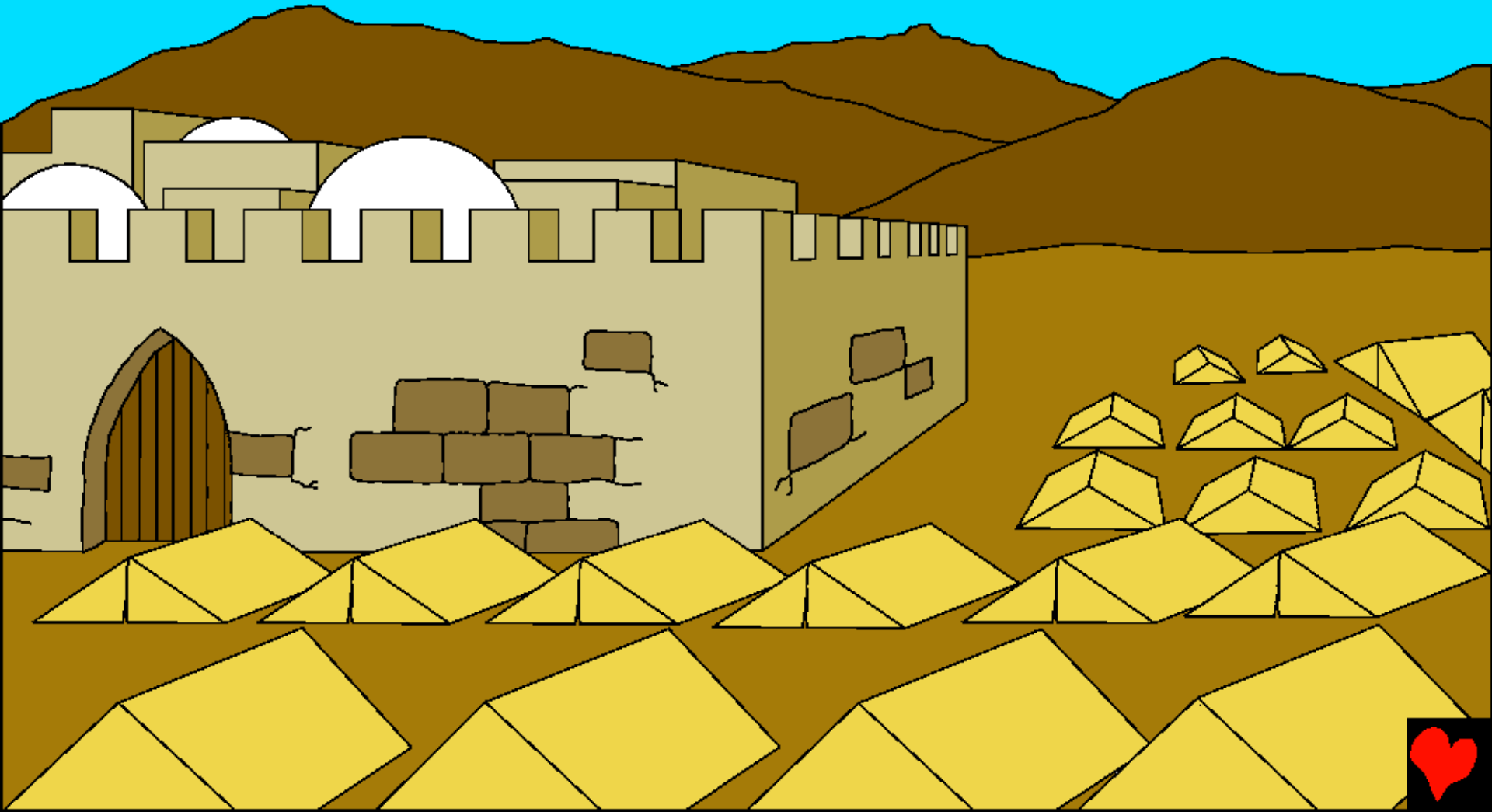
사무엘은 주님께 순종해
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어요.
그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키자,
백성들은 “왕이여, 만수
무강 하소서!” 라고 외
쳤어요.



하나님은 사울은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암몬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를 둘러싸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모조리 빼 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계략이죠?



이 협박의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속히 군대를 준비시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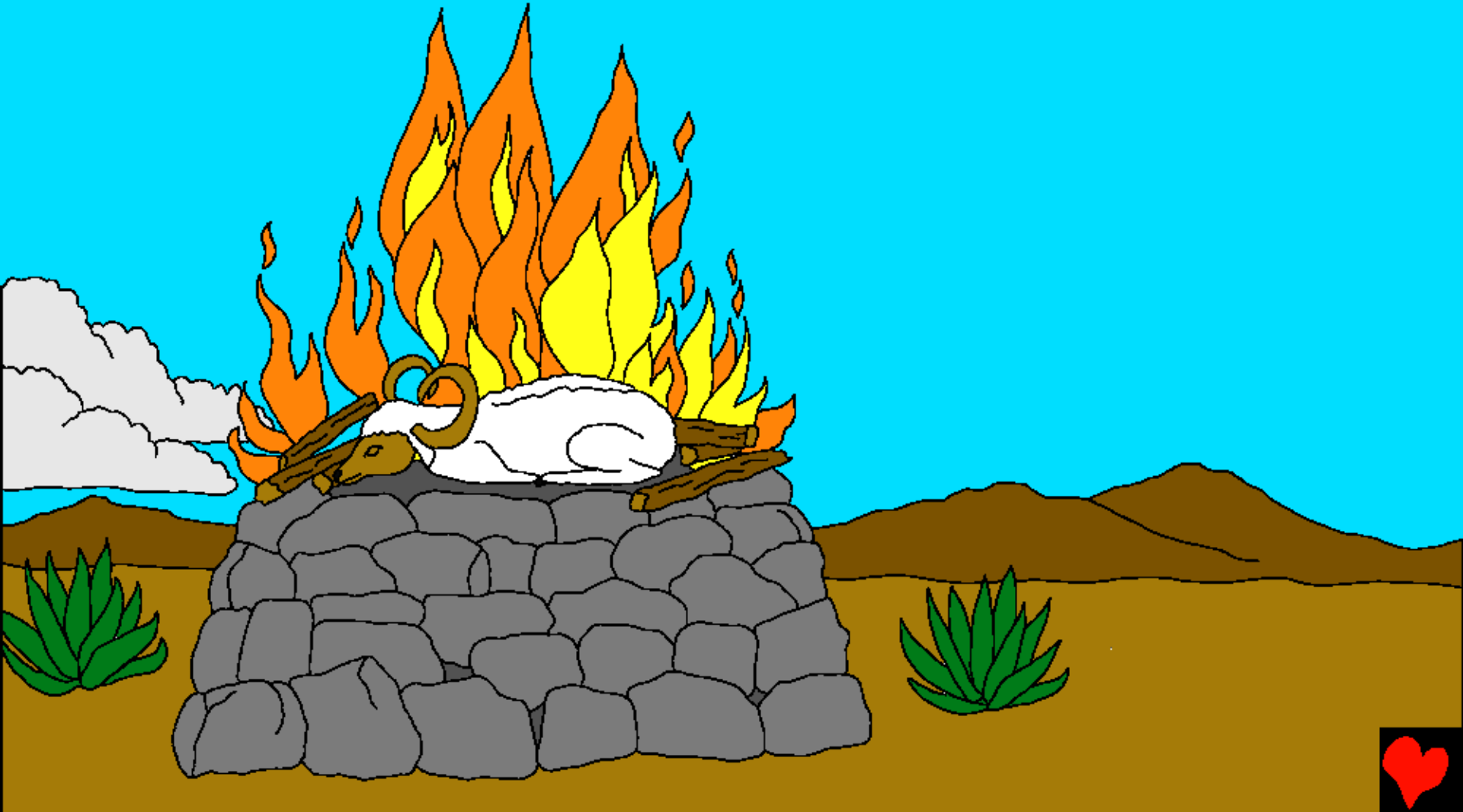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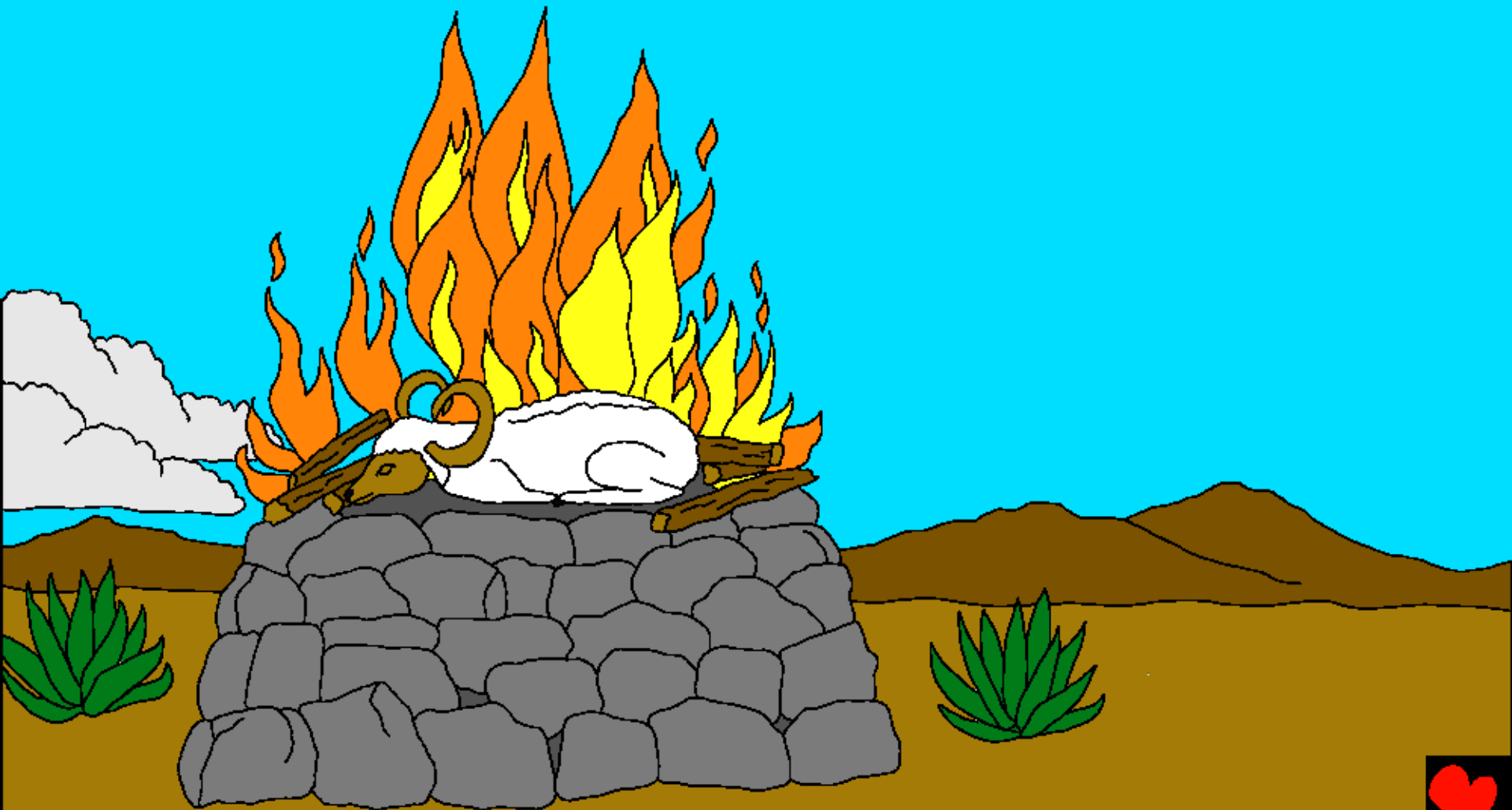
두 군대가 만났을 때, 사울은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그 도시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라고 찬양하였지요.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한번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의 임무였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며 “네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구나.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였어요.



사울은 이것이 아주 조그만 죄라고 생각했을 지도 몰라
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은 언제나 심각한 죄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악한
아말렉 사람들은 멸종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귀중품들을
자기를 위해 보관하였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있었
다고 변명하였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쳤지만 너무 늦고 말았어요. 그의 남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잘생겼지만 어리석은 왕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16 장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